

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

-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자원획득을 위한 해외자원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그만큼 직접투자에 따른 리스크도 큼
- 반면, 일본은 미국에 비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경험축적도가 낮고, M&A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기 쉬운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이 낮음
- 그러나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목적 변화와 법·제도 면에서의 환경정비 등 2가지 요인에 의해 일본의 해외 M&A는 그린필드형 투자 대비로 현재 미국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

1.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서 해외직접투자 수익

- 200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음
- 그러다가 2008년 리먼 쇼크(세계금융위기)로 인한 수출 감소→무역수지 흑자 감소, 이어 20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원유수입 상승→무역수지 적자 반전, 2011년 이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무역수지적자폭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
- 2000년대 전반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수익을 중심으로 한 제 1차 소득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
- 제 1차 소득수지 흑자는 2000년경까지는 제자리걸음하다가, 리먼 쇼크 이후 한때 축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완만한 증가경향을 보임
- 제 1차 소득수지는 크게 피고용자 보수와 투자수익 및 기타 제 1차 소득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, 이중 특히 규모가 큰 투자수익은 직접투자 수익과 증권투자 수익, 그리고 기타 투자수익으로 나뉘짐

- 직접투자 수익에는 해외에 직접 투자된 투자 자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 계상되는데, 이중 특히 근년에는 수송기계제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배경으로 직접투자수익이 증가하고 있음

2. 해외직접투자의 국제비교

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잔고 및 수익의 대 GDP 비율 모두 상승하고 있으나, 양자 모두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

□ 직접투자 잔고

- 해외직접투자의 역사를 반영하여 영국>독일>미국>일본 순

□ 직접투자 수익

- 직접투자 잔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도 영국>독일>미국>일본 순

□ 일본의 투자수익률 특징

- 직접투자 대상지역별 수익률과 투자 잔고의 쉐어를 보면, 수익률 수준은 모든 지역에서 일본이 미국보다 낮음
- 2000년대 전반과 2010년 이후를 비교하면, 일본, 미국 모두 전체로서 직접투자수익률이 상승
 - 다만, 지역별로 보면, 일본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EU와 아시아·대양주뿐이고, 북미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여타 지역은 저하
 - 한편, 미국의 경우는 유럽, 중남미, 중동·아프리카에서 상승하고 있으며, 여타 지역에서는 변동이 없음

□ 투자 잔고와 수익률간 관계

- 미국은 2000년대 전반과 2010년 이후 사이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음

- 반면, 일본의 경우는 수익률이 높은 지역의 투자 잔고 웨어가 높아지고 있음
- 이상에서 미국은 지역별 수익률의 상승, 반면 일본은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에 의해 각각 전체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음

□ 투자 리스크


- 일본은 투자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전체 수익률이 상승하는 패턴
 - 첫째, 미국과 일본 모두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높은 수익률에 높은 리스크가 동반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투자운용과 동일한 특징이 보이고 있음
 - 둘째, 리스크의 경우 각 지역의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일본이 미국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전체로서 리스크는 일본이 미국을 약간 하회
 - 이는 일본의 경우 그만큼 투자를 분산시킨 결과로서 리스크 감소에 기여
 - 셋째, 수익성과 리스크의 관계를 보면,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음
 - 리스크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낮추든가, 아니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

3.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과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□ 해외자원투자의 필요성에서 오는 높은 리스크 부담

- 일본의 직접투자대상국별 리스크를 보면, 호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
 - 일본의 대 호주 투자 중 56%가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로서, 광업은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자원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
 -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자원획득을 위한 해외자원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그만큼 직접투자에 따른 리스크도 큼

□ 높은 그린필드(green field)형 투자비율과 낮은 수익률

- 일본이 미국에 비하여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이 낮은 배경으로, 일본이 미국에 비하여 직접투자의 역사가 짧고, 해외직접투자의 경험축적도가 낮은 점에 더하여, M&A에 비하여 수익률이 낮기 쉬운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들 수 있음
- M&A는 판매망이나 기술 등 기존기업이 가진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수익률이 높음
- 한편, 설립년수와 매출액감가상각비 비율과의 관계를 보면, 설립년수가 적은 기업은 매출액 대비 감각상각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, 그린필드형 투자의 경우 그만큼 설립 후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큰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움
- 일본의 M&A는 2006년경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린필드형 투자 대비 해외 M&A는 현재 미국과 비슷한 정도까지 상승
- 이 배경으로는 주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목적변화와 법제도 면에서의 환경정비 등 2가지를 들 수 있음
- 기업의 직접투자 목적은 국내생산 대체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 감소한 반면, 현지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, 시장이 쉐어를 획득하려는 목적에 따른 방법으로서 해외M&A를 늘리고 있음
- 그리고 환경면에서는, 1997년 지주회사 해금, 1999년 주식의 교환·이전제도, 2006년 회사법 시행 등 법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. 

<참고자료>

- 『일본의 대외직접투자 동향』 일본 내각부, 2016년 1월30일
http://www5.cao.go.jp/keizai3/monthly_topics/2016/0129/topics_048.pdf